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 주간 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다음 주일(31일), 오순절 성령강림주일

부활주일부터 50일간 계속되는 부활절기(Easter season)는 기쁨의 50일'로 불리며, 부활주일과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을 연결하는 교회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즉 부활절기는 부활주일부터 시작하여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에 그 절정을 이루는 50일간의 기쁨의 기간입니다. 초대 교회도 부활주일부터 성령강림주일까지 50일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완전한 승리의 기쁨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력에서 이 50일간의 기쁨의 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부활절기, 그 절정에 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50일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리던 농경축제였지만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제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축제이자 교회의 탄생일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한 기쁨의 파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한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회)

##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초가 되는 회개

하나님께서는 참 회개한 자 곧 상한 심령을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며 회개하는 죄인들을 떠나게실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문이 열릴 때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아름다운 교제의 기쁨으로 자들의 마음을 채워 주실 것이다(계 3:19~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하는 회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눅 15:20, 22, 24). 예수님의 자살명령은 회개를 포함하고 있다(눅 24:47).

인간은 늘 하나님 곁에 있고 또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빛이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교제를 할 수가 없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심령은 늘 자기만족에 취하여 교만하며 냉정하다(약 4:6).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나니아나 삽비라와 같은 부류의 신앙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행 5:8~9). 그러나 성령님께 거짓말을 한 이들의 영과 우리는 얼마나 흡사한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음지 몰라도 이것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대신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늘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는 죄의 원천을 깨끗하게 씻어 버릴 수가 없다. 참으로 슬픈 일은 우리가 모두 바리새인들과 같다는 사실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며 또 존경과 명예를 사랑하던 성경학자들이다(요 5:39). 이들은 위선과 교만으로 마귀의 영향 아래 있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깊이 깊이 눈이 멀어져 버렸다(요 9:40~41).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는 회개의 시대다. 이 새 세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시으로써 시작되었다(마 1:4, 14~15). 사도들이 선포한 중거의 말씀도 같은 메시지였다(행 20:21). 오순절에 새 세대의 능력이 임하였다. 여기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구하라."는 초청으로 새 세대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되었다(행 2:38, 3:19~20). 우리는 왕의 명령을 전하며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므로 죄를 범하고 있다. 우리아말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 되고 말았다(마 5:19).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눅 7:19). 우리 자신을 믿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려고 함으로써 우리는 성령님을 가두어 억누르고 있다. 수많은 교회와 사역자들, 그리고 평신도들까지도 모든 일이 편하다고,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할 때에 실상 우리는 죽음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렘 17:5~6, 13).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쇼를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우리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말과 헛된 약속과 깨어진 꿈들 그리고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속에서부터 탄식하시며 우리의 종교적인 외식과 위선으로 인하여 거룩한 눈물을 쏟으시며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치신다. 또한 우리의 신실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하여 발견되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성령님께 간구하여야 한다(시 139:23~24). 이 길은 결코 즐겁고 기쁜 길만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그에게서 흐르는 생수를 마시는 것을 배워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요 7:37~39).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대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 RECAPTURING PENTECOST

***<sup>(41)</sup>So then, those who had received his word were baptized;  
and that day there were added about three thousand souls.***

***<sup>(42)</sup>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Acts 2:41-42)***

Originally, Pentecost was the fourth of the annual feasts of the Jews, after Passover, Unleavened Bread, and First Fruits. It fell fifty days after First Fruits. It was on the day of Pentecost when the Holy Spirit came down upon Jesus' disciples. This great event marked the beginning, the birth day, of the Church. The true Church is founded upon the Lord Jesus Christ, and it is continually built upon by the Holy Spirit until Christ's return. Pentecost was not the start of a denomination, but the beginning of Christian faith. After Christ's resurrection, the Bible gives clever accounts of His appearing to His disciples. Right before His ascension, Jesus commissioned them saying,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Acts 1:8). Ten days after His disciples heard this commission and witnessed His ascension, while they were waiting and praying in Mark's upper room, the Holy Spirit came. Let's recapture the work of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had to do with conversion. Today's Bible verses begin, "So then, those who had received his word were baptized; and that day there were added about three thousand souls" (Acts 2:41). Three thousand people had gladly received God's grace through Peter's sermon. Their conversion, initial acceptance of the gospel, wasn't due to Peter's great preaching abilities, but solel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ll real conversions are the work of the Holy Spirit, not the result of any human ability. Titus 3:5 reminds us of this, "He saved us, not on the basis of deeds which we have done in righteousness, but according to His mercy,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ing by the Holy Spirit." These three thousand souls had previously rejected Christ. In fact, they were the ones who hated Him, but now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ey loved God's gracious provision of salvation. Peter preached, "Men of Israel, listen to these words: Jesus the Nazarene, a man attested to you by God with miracles and wonders and signs which God performed through Him in your midst, just as you yourselves know—this Man, delivered over by the predetermined plan and foreknowledge of God, you nailed to a cross by the hands of godless men and put Him to death. But God raised Him up again, putting an end to the agony of death, since it was impossible for Him to be held in its power" (Acts 2:22-24). These religious men had stood in the presence of Jesus Himself and witnessed His ministry, but did not receive Him. Their denial was so severe that they had Him crucified. It wasn't until the Holy Spirit touched their hearts on the day of Pentecost that Jesus became their Savior. So, the good news is that no one is too far gone for the Holy Spirit to reac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included public witness. Today's opening Bible verse says, "So then, those who had received his word were baptized; and that day there were added

about three thousand souls" (Acts 2:41). Baptism is a public confession. Salvation takes place in the heart, but we confess openly in baptism. Baptism is the public witness of our identification with Christ. Believers are baptized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t's the Holy Spirit that moves one to this act of obedience. Before Peter's sermon, these three thousand souls were in a hostile atmosphere. They were confused, but after hearing Peter's sermon their minds cleared up. The Holy Spirit straightened out everything. Everyone who chooses baptism is in good company. Jesus chose it, Paul chose it, and the three thousand converted souls chose it. The Holy Spirit gives public expression to the gospel through u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also produced Christian growth. The second verse of today's Bible verse says,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Acts 2:42). These blessed people began to truly love one another and to share their Christian faith. Believers are not saved just once or escape from hell just once, but rather are continually saved each moment, whether sleeping, working, or playing. Sanctification is an ongoing process. The Holy Spirit continually teaches us. Jesus told His disciples,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that He may be with you forever; that is the Spirit of truth,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because it does not see Him or know Him, but you know Him because He abid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at I said to you" (Jn. 14:16-17, 26). The Holy Spirit is in each believer and helps them to live as God's child. He equips, encourages, and edifies us. He teaches us "all" things. He refreshes our memory concerning God's Word. He comforts us during our times of need. The Holy Spirit leads us to higher ground all the time.

My dear friends, today is Pentecost Sunday. Let's recapture the power and presence of the Holy Spirit by denying ourselves, taking our crosses, and following Jesus. When we do this, His directions become clear and His will becomes our own. We can only live under God's will and walk His narrow path to heaven with the help of His Holy Spirit. He makes victory possible in this world. What a blessing that we are not alone! God is always with us and His Holy Spirit always helps us. What a great da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s so amazing. Please let the Holy Spirit open your heart to receive God's Word. Let Him nurture your soul and lead you into public witness. He will open your spiritual eyes and make God's doings known to you. Like a gardener, who diligently fertilizes and waters the flowers, so too will the Holy Spirit care for your soul. If you listen to His voice, He will grow you into a beautiful human being that can be planted in heaven forever. Amen. 🌱

## 다음 주일 설교

## 오순절의 회복

<sup>(40)</sup>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sup>(42)</sup>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41~42)



김성환 목사

원래 오순절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에 오는 유대인의 네 번째 명절로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 다. 이 놀라운 사건은 교회의 시작과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며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에 의해 지어져 갑니다. 성령강림절은 교단의 시작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이 명령과 함께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지 열흘 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 성령님의 역사는 변화시켰다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는 회심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행 2:41). 삼천 명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회심 곧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베드로의 탁월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모든 회심은 어떤 인간의 능력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디도서 3:5은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삼천 명의 영혼들은 예전에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범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막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행 2:22~24). 이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분의 사역을 목격했지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진 뒤에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성령님께서도 어찌하지 못할 만큼 구제불능인 사람은 없다는 것이 복 된 소식입니다.

### 성령님의 역사는 공중 앞에 변화를 하게 하신다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는 공적인 증거인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행 2:41). 세례는 공적인 고백입니다. 구원은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통해 공개적으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세례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공적인 증거입니다. 신자들은 아버

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순종의 행위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삼천 명의 영혼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 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 그들의 마음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좋은 동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바울도 받았으며 회심한 삼천 명의 사람들도 세례를 받았습니 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 성령님의 신자들을 자라게 하신다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는 또한 기독교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본문말씀의 두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 2:42). 이 은총받은 사람들은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며 기독교 신앙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들의 구원은 단 한 번에 완성되거나 지옥을 피하는 것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들의 구원은 자든지 일하든지 놀든지 간에 매순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성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16~17,26). 성령님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격려하시며, 훈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강림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해지고 그분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살 수 있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얼마나 복 된 날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습니 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역사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양육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믿음을 전할 수 있게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화초에 부지런히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정원사처럼 성령님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성령님께서도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에 심겨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

## 마가복음 강해 72

##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다 (13:24~27)

을 사람들이 보리라"(막 13:26). 이 말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人子, the Son of Man)라고 표현하신 것이다. 마가복음은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세 번만 기록하였는데 한결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리라"(막 8:3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막 14:62).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이다. 특별하게 보여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말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놀라운 재림에 관해 말씀하실 때 '메시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특히 당시 권위와 율법을 중시하던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밝히셨던 것이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간파하였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따라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것도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다. 실제로 제자들은 세 번이나 반복된 인자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막 8:31, 9:9, 10:33, 14:21). 믿지 않으면 인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기독교는 은총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소위 모든 종교가 중시하는 노력과 지식, 열정과 경험은 기독교와 무관하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처럼 세상의 가치와 기준, 문화와 습관에 따라 정의하려고 한다. 거듭나야 참 신자가 된다. 은총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조차도 세상의 가치와 문화, 자신만의 기준에 맞추어 생각하며 전혀 다른 복음, 우상을 만들게 된다.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예수님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막 2:10,28). 세상이 매우 미련하다고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고전 1:18~21; 마 4:17).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요 3:13)는 말씀을 최고의 성경화자인 외제도가 깨닫지 못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자'라는 말에 분명히 막히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전에 인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계 1:7)이 보았으며 그 훨씬 전에는 다니엘(단 7:13~14)이 환상 중에 보았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며 이 세상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막 13:24~25; 사 13:9~10; 욥 2:10~11). 예수님의 재림 일이 일어날 성경본문을 두고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같은 논쟁에 빠지지 말고 성경의 초점이 무엇인지 기억하자.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분을 향한 믿음만을 요구하고 있다(요 5:27~29,39).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에서 믿음(막 13:32)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게 된다. 믿음은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을 때 '하늘의 찬송이 들리는 그 날',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아멘.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참빛하늘나라 교회에서 온 편지

**몽골 선교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에 이르렀음을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건조하여 푸르름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에 주께서 참빛하늘나라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척박한 이곳에 영혼이 목말라 쪼든 학교 안, 겨우 세 사람이 들어갈만한 공간에 성경을 갖다 놓고 읽고 기도하는 그들을 보며 예수님의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작년 말 제가 이곳을 잠시 떠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삼 개월 쉬고 올 거예요. 주님이 교회와 이곳의 영혼들을 인도하세요."라고 일반적으로 통보하고 한국으로 갔지요. 하지만 쉬지도, 기도 하지도 못하고 일상에 밀려드는 일들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가 시간이 흘러 부랴부랴 짐 싸 들고 다시 이곳으로 왔어요.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니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기로 서원하고 몸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매일, 순간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날도 기도 시간에 16명이 모여 성경을 읽고 말씀을 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드린 뒤 함께 기도를 하니 땅에서도 하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종려주일을 지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지 오래지 않아 세 분의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전과 학습,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은혜로 얼굴이 빛나고 집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며 세 분의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에게 주께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모두가 그 영적 권위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하얀 천 위에 붉은 색의 성찬보가 달린 탁자를 보며 내 죄 때문에 몸 씻기어 조카 나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십일 명의 학습자와 칠 명의 세례자들이 은혜로 충만한 모습을 보며 그날 저녁에 저는 주님의 그 사랑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그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날 위해 죽임 당하시어 십자가 흰 천에 덮이신 모습을 제 앞에 보여주시니 눈물범벅이 되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고귀한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을 이 선교지에서 받고 보니 어찌 불평할 수 있으리요! 오! 주님! 하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성찬은 주님이 더 원하고 원하셔서 주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아멘.

신재금(현지 선교사역자)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5월 25일(월) ~ 6월 2일(화) | 24교구 1팀 | 이민숙 |
| 5월 25일(월) ~ 6월 3일(수) | 19교구 1팀 | 최진성 |

\*학습 및 세례식을 마친 세례자(학습자)들이 주일에 간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간중을 적었습니다.

이기 : 집례하시는 세 분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은유와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격정과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연도 : 세례 받을 때 주님이 내 곁에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리 : 믿음의 흔들림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대기 :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빨리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 ‘이런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 25년이 넘었으나 교회를 나 자신의 안식처로 생각하며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고 외적으로 다녔던 때와 세상의 즐거움과 보이는 것에 더 가까웠던 지난 세월이 참으로 부끄럽고 헛된 일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종신 주님은 죄인 중의 죄인인 저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어 2년 전에 저를 가브리엘 찬양대원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처음 주님의 단에서 찬양을 불렀던 그 날 복 받치는 눈물을 체면하게 하였고,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시어 은혜의 찬양으로 불러질 때 저의 가슴은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 폐암으로 소천하신 둘째 형님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죄인을 사용하시고, 천국길 안내자로 세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예비하심은 주님의 크고 넓은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가브리엘 테너 파트장과 남성구역장을 맡기셨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간 봉사할 모르고 살았던 저에게 ‘이런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직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께 간구하면서 충성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믿음을 더해 주시고 기쁜 찬송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종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안재선(집사, 14교구)

## 오직 기도 밖에

올해 3월부터 중등1부 교사를 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보니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새삼스럽게 하고 우리 때와는 사뭇 다른 아이들의 모습에서 놀라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는 선생님,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기를 결심해 보았다. 막상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공과 시간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것부터 어려웠다. 하지만 교사훈련 시간과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많은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됐다. 심장이 뛰는 교사, 같이 땀을 흘리는 교사,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 나에게 도전이 되는 교사, 이런 모습이라고 할까. 하지만 아이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힘들었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에게 맡겨진 이 어린 눈망울들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다.

나 또한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터라 특히 혼자 나오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정말이지 양친 부모가 되어주어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아직 우리만의 학습은 단 한 명이다. 어린 집사님께서 출석부에 적힌 우리 반 학생수를 보며 “편하러 봉사하냐?”고 비아냥거리었다. 하지만 난 숫자에는 상관없다. 나에게 맡겨진 아이가 한 명이라도 그 아이가 천국일꾼으로 성장하는 데 작은 기도의 힘이 되고 보낼 수 있다면 이 자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 귀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처음에 교사 요청이 들어왔을 땐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는 이 자리까 부당스러웠지만 지금은 그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오늘도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주님, 나에게 맡겨진 이 어린 영혼을 천국일꾼으로 양성시키는데 저는 부족하오니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복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이수진(교사, 중등1부)

##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찬양, 예배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은 세상의 분주함을 핑계로 자주 이전의 경험 중에 하나가 되어갔고,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와 열려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나의 발목을 잡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주일 하루만 최선을 다해 봉사하면 된다.’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자의 마음으로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근심과 걱정을 가득 안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셨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금요찬양집회를 통해 찬양과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새벽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회복시키시어 회개토록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까지의 나의 삶과 앞으로의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고한 감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더 나아가 남겨진 나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소망과 열심 또한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박병선(집사, 23교구)

## 복음의 종, 들로스

3월 8일 고등부에서 학교전도 소그룹인 들로스의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들로스는 노예, 종이라는 뜻으로, 학교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교리를 나누는 소그룹입니다. 발대식을 하고도 생각을 해보니 학교전도의 전부장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 보지도 않았고 전도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여 실천해 보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들로스에서 말씀을 나누고 마침 때 학교에 가서 잠깐이라도 예배를 드리보라며 예배순서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고민이 일었습니다. 이것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친구들의 반응이 어떨까?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은 아닐까?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보고 싶은 마음보다 다른 생각들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 달라고... 그 순간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순서지를 꺼내 들고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자 뭉치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라고 했습니다. 조금 열렸지만 친구들이 생각보다 흔쾌히 참여해 주고 내 말을 알아달라고 읽고 기쁘게 따라주었습니다. 말씀을 읽자, 그 순간 내 마음에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과정 과정은 부족함이 많았지만 함께 예배를 마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고 예배가 끝난 후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들이 “또 안 하느냐?”고 물어보아 아주 기뻐했습니다. 꼭 이 친구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전도를 할 때 정말 주님이 역사하심을 알았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양찬미(고등부)

오순절 성령강림을 기다리며 2

오순절에 어떤 교회가 생겼는가?

(사도행전 4:31~35)

초대 교회는 그 정체성을 구별짓는 뚜렷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교회가 마땅히 지녀야 할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 살펴 보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 있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빈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자신들의 의견을 버리고 기도했을 때 그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자신의 힘과 생각, 의지로 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요 14:13~14). 초대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인간은 순간순간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입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한 순간 행복해하다가도 곧 슬픔과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전혀 다릅니다(고전 6:19).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즉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고전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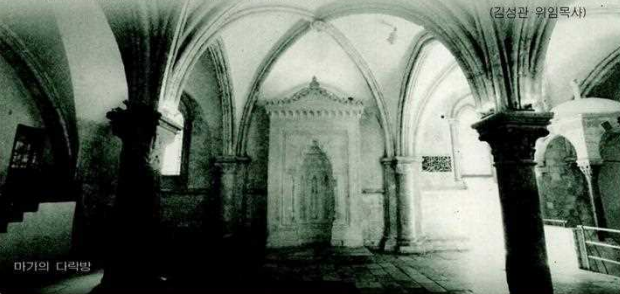
복음을 증거한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목적은 신자들을 감화시키고, 격려하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행 1:8).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학자가 아닌 어부였지만 그들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권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행 4:13). 신한 박해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지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행 8:4).

서로 통용하는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서로 통용하는 교회였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국인들은 결속력이 무척 강한 편이지만 아직도 이런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교회였습니다(딤후 6:19).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교회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는 은혜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는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초대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영생과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소유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성령님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있는 것이 되었습니다(롬 12:3~5).

예수님은 충현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 교회의 중요한 특징들이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까? 우리는 서로 통용합니까? 진실로 은혜로 충만한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김성관 원일목사)



마가의 다락방

수화 합법 ② 사도신경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의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에 대해 3가지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다. 첫째, 하나님은 자녀 삼오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둘째,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셋째, 하나님은 창조주이다. 이어 사도신경의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도신경의 핵심이다.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 번호  | 성명  | 교구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소속부서 | 인도자     |
|-----|-----|---------|---------|-----|------|---------|---------|
| 768 | 김정봉 | 2 장년2부  |         | 796 | 남바사비 | 18 대학부  | 조옥환(11) |
| 769 | 유광준 | 24 청년1부 | 유영환(18) | 796 | 김정   | 25 사랑부  | 박재민(8)  |
| 770 | 이길호 | 17 청년1부 | 이숙희(18) | 797 | 윤성태  | 11 청년2부 | 백재홍(18) |
| 771 | 이철호 | 16 소망부  | 하순임(16) | 798 | 김혜현  | 23 청년1부 | 이인숙(10) |
| 772 | 김다솔 | 7 고등부   | 양금희(17) | 798 | 박민옥  | 8 장년2부  | 이소규(9)  |
| 773 | 최지민 | 1 대학부   | 황호선(10) | 800 | 홍정윤  | 2 청년2부  | 박노익(23) |
| 774 | 황재익 | 9 청년2부  | 유승희(9)  | 801 | 우정영  | 2 장년3부  | 최계열(2)  |
| 775 | 우성식 | 23 장년2부 | 박연옥(12) | 802 | 김남경  | 25 대바다부 | 이계록(12) |
| 776 | 남유정 | 3 초등부   | 이규숙(12) | 803 | 김현진  | 10 장년2부 | 이재민(12) |
| 777 | 한명숙 | 1 장년2부  | 김희영(4)  | 804 | 손수민  | 7 중등3부  | 김숙자(23) |
| 778 | 전재훈 | 2 대학부   | 김은심(7)  | 805 | 김서재  | 6 청년2부  | 이환선(5)  |
| 779 | 최종학 | 8 중등3부  | 이기현(8)  | 806 | 장주연  | 1 대학부   | 임민비(7)  |
| 780 | 김지석 | 8 장년2부  | 오형식(8)  | 807 | 서윤정  | 6 고등부   | 최안나(19) |
| 781 | 김희영 | 2 장년1부  | 황경분(2)  | 808 | 강계정  | 17 장년2부 | 이상배(13) |
| 782 | 김익선 | 11 장년1부 | 최동식(5)  | 809 | 이태근  | 15 대학부  | 이숙희(1)  |
| 783 | 이소영 | 22 대학부  | 현술기(22) | 810 | 문진명  | 15 청년1부 | 김영은(15) |
| 784 | 김영진 | 24 장년1부 | 신정숙(10) | 811 | 이소영  | 21 대학부  | 고홍선(21) |
| 785 | 김계열 | 9 장년3부  | 안노수(10) | 812 | 박준우  | 2 청년1부  | 정숙자(12) |
| 786 | 채윤경 | 1 청년1부  |         | 813 | 기선희  | 16 장년1부 | 송정순(12) |
| 787 | 정일수 | 9 청년1부  | 권복중(22) | 814 | 최종호  | 16 장년2부 |         |
| 788 | 손은영 | 21 고등부  | 김낙홍(21) | 815 | 강재숙  | 3 장년1부  | 김영숙(5)  |
| 789 | 최성훈 | 8 중등1부  |         | 816 | 안병애  | 13 장년1부 | 전성실(13) |
| 790 | 주지환 | 8 중등1부  |         | 817 | 이동현  | 24 청년1부 | 남정숙(18) |
| 791 | 김영철 | 1 장년1부  | 이영환(1)  | 818 | 서병일  | 1 소망부   |         |
| 792 | 서애경 | 1 장년1부  | 이영환(1)  | 819 | 전우서  | 23 청년2부 | 민형은(10) |
| 793 | 김기은 | 1 초등부   | 이영환(1)  | 820 | 정경환  | 22 청년1부 | 김하경(15) |
| 794 | 김지환 | 1 유치부   | 이영환(1)  |     |      |         |         |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2 새가족등록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                                                                          |                                           |
|--------------------------------------------------------------------------|-------------------------------------------|
| <b>모임</b>                                                                | 2. 중순회 은퇴집사(12교구 상선1구 하) / 18일 밤세, 20일 정례 |
| 1. 남·녀 전도의 회장 열매회<br>일시 : 24일(오늘) 15:30<br>장소 : 제1교육관 407호               |                                           |
| 2. 집사회 4차회<br>(4·8·12·16·20·24교구)기도회<br>일시 : 26일(토) 새벽기도회 후<br>장소 : 배비루홀 |                                           |
| 3. 권사회 찬양연합회<br>일시 : 배비루홀(6월 7일까지) 15:00<br>장소 : 갈릴리움                    |                                           |
| 4. 집사회 찬양연합회<br>일시 : 배비루홀(6월 14일까지) 15:20<br>장소 : 제1교육관 307호             |                                           |

|                |                                                                    |
|----------------|--------------------------------------------------------------------|
| <b>별 세</b>     | 1. 우육순 성도(바게인) 감사의 모친·김현미 안수삼사의 장모, 11교구 상계4구구 / 15일 밤세, 18일 정례    |
| <b>주 소 본 권</b> | 1. 김항국 장로, 정성순 권사(노·원구 장제4구 상계4구 513-1102 / 51070-8281-0685, 11교구) |

|                                                                                                                       |                  |
|-----------------------------------------------------------------------------------------------------------------------|------------------|
| <b>교회훈련원 특강예배</b><br>일시 : 24일(오늘) 15:40<br>대 상 : 수요성경공부·교사양성부 수료자                                                     | 장 소 : 제1교육관 301호 |
| <b>권사회 수련회</b><br>일시 : 25일(토)~26일(토) 10:00~17:00<br>장 소 : 갈릴리움                                                        |                  |
| <b>전도 회장단 양성훈련(회장·부회장·전도부장)</b><br>일시 : 31일(토)을 주일 15:10~16:00<br>장 소 : 제1교육관 407호                                    |                  |
| <b>집사회 부부연합 수련회</b><br>일시 : 6월 5~6일(5일 금요찬양회 후 출발)<br>대 상 : 안수삼사 부부 전원                                                | 장 소 : 충현기도원      |
| <b>아름답게말교 교사간담회</b><br>일시 : 6월 7일(주) 12:10~13:50<br>대 상 : 제1교육관 507호                                                  | 장 소 : 제1교육관 507호 |
| <b>선교인회 훈련</b><br>일시 : 매주월 15:00<br>장 소 : 제1교육관 405호(내물동) 501호(캄보디아) 505호(몽골) 504호(우크라이나) 507호(나팔) 508호(인도) 510호(베트남) |                  |
| <b>통원전 집도회</b>                                                                                                        |                  |

| 부 서  | 일 시              | 장 소            |
|------|------------------|----------------|
| 2교구  | 24일(오늘) 14:00    | 제2교육관 2층 8호    |
| 11교구 | 24일(오늘) 14:00    | 제2교육관 307호     |
| 14교구 | 24일(오늘) 14:00    | 제1교육관 301호     |
| 19교구 | 24일(오늘) 14:00    | 제2교육관 301호(나팔) |
| 22교구 | 24일(오늘) 14:00    | 북지리 지하2층       |
| 42교구 | 31일(다)을 주일 14:00 | 제2교육관 2층       |
| 18교구 | 31일(다)을 주일 14:00 | 제2교육관 4층       |
| 15교구 | 31일(다)을 주일 14:00 | 선교관 지하2층 배비루홀  |
| 24교구 | 31일(다)을 주일 14:00 | 제2교육관 3층       |
| 청년부  | 31일(다)을 주일 12:10 | 제2교육관 2층       |

|                                             |                     |
|---------------------------------------------|---------------------|
| <b>2009년 제8차 CMTC (교육과정: 3주전, 장소: 갈릴리움)</b> |                     |
| <b>CMTC (선교훈련)</b>                          |                     |
| <b>시 간</b>                                  | <b>6월 7일(주일)</b>    |
| 18:15~19:15                                 | 제1강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
| 19:15~19:30                                 | 제2강 송현교회 선교전략       |
| <b>시 간</b>                                  | <b>6월 14일(주일)</b>   |
| 18:15~18:45                                 | 제3강 선교사 영적 생활       |
| 18:45~19:10                                 | 제4강 복음화 통한 역사와 문제해결 |
| 19:10~19:30                                 | 제5강 영성기도회           |
| <b>시 간</b>                                  | <b>6월 21일(주일)</b>   |
| 18:15~19:50                                 | 직무훈련                |

| 새벽기도회 (5/25-5/31) |           |         |           |         |          |          |          |
|-------------------|-----------|---------|-----------|---------|----------|----------|----------|
|                   | 25 (월)    | 26 (화)  | 27 (수)    | 28 (목)  | 29 (금)   | 30 (토)   | 31 (주일)  |
| 설교자/기도자           | 김성관/최유덕   | 송재호/한현석 | 김인환/최유근   | 장 훈/김종구 | 김성현/이양호  | 정중신/이복순B | 박준식/전영희  |
| 설 교 본 문           | 막 14:1-11 | 암 7:1-9 | 암 7:10-17 | 암 8:1-3 | 암 8:4-14 | 암 9:1-6  | 암 9:7-15 |

| 예배 담당 (5/27~5/31) |        |                                                        |         |                               |                                                                                                                                                                     |
|-------------------|--------|--------------------------------------------------------|---------|-------------------------------|---------------------------------------------------------------------------------------------------------------------------------------------------------------------|
| 날짜                | 예 배    | 설 교                                                    | 사 회 기 도 | 찬 양                           |                                                                                                                                                                     |
| 5/27              | 수요 I   | 아들이 받으신 고난(히 5:7-9) 정민권 목사<br>양과 염소(마 25:31-41) 박인기 목사 | 유요한     | 지영순                           | 빈 들에 마른 풀같이(호산나 찬양대)                                                                                                                                                |
|                   | 수요 II  |                                                        | 김성현     | 박현옥                           | 행군 나팔 소리(실로암 찬양대)                                                                                                                                                   |
| 5/29              | 금요찬양   | 김성관 목사                                                 | 유현철     | 예루살렘 찬양대 / 예루부 중창단 / 바이올린 장연희 |                                                                                                                                                                     |
| 5/31              | 주일 I   | 오순절의 회복(행 2:41-42) 최진철 목사                              | 송재호     | 고재승                           | 《예배 전 찬양》<br>나아는 날 공물을 제하며 / 소와노 장수원(마태복음 찬양대 솔로리스트)<br>내가 매일 기쁘게 / 금관 주향(할렐루야 오케스트라)<br>오 신실하신 주 / 품목 권준영(아멘 오케스트라)<br>김근영 김성주<br>심자가로 가까이 / 바리론 이세희(별빛 찬양대 솔로리스트) |
|                   | 주일 II  | 오순절의 회복(행 2:41-42) 최성득 목사                              | 탁정연     | 오순도                           |                                                                                                                                                                     |
|                   | 주일 III | 오순절의 회복(행 2:41-42) 김성관 목사                              | 이희석     | 김영달                           |                                                                                                                                                                     |
|                   | 주일 IV  | 오순절의 회복(행 2:41-42) 유요한 목사                              | 김현수     | 최유덕                           |                                                                                                                                                                     |
|                   | 주일 V   | 오순절의 회복(행 2:41-42) 양재호 목사                              | 김근영     | 김성주                           |                                                                                                                                                                     |
|                   | 주일찬양   | 교회에 계신 성령님(행 4:23-37) 김성관 목사                           | 강호성     | 김영주                           |                                                                                                                                                                     |

예배 및 집회 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I      | 오전 7:00                  | 본 당 |
| II     | 오전 9:00                  | 본 당 |
| III    | 오전 11:00                 | 본 당 |
| IV     | 오전 1:00(외국인 동시통역 예배)     | 본 당 |
| V      | 오후 3:00<br>(젊은이가 다니는 예배) | 본 당 |
| 주일찬양예배 | 오전 5:00                  | 본 당 |
| 수 오 예배 | I 오전 11:00 II 저녁 7:30    | 본 당 |
| 금요찬양집회 | 저녁 7:30                  | 본 당 |
|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 5:00               | 본 당 |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영 아 부  | I 오전 9:00<br>II 오전 11:00 | 제1교육관 110호 |
| 유 아 부  | 오전 10:50                 | 제1교육관 201호 |
| 유 지 부  | 오전 10:50                 | 제1교육관 207호 |
| 유 년 부  | 오전 10:30                 | 제1교육관 307호 |
| 초 중 부  | 오전 10:30                 | 제1교육관 407호 |
| 소 년 부  | 오전 10:30                 | 제1교육관 507호 |
| 중 등 1부 | 오전 9:00                  | 제1교육관 301호 |
| 중 등 2부 | 오전 9:00                  | 제1교육관 401호 |
| 중 등 3부 | 오전 9:00                  | 제1교육관 501호 |
| 고 등 부  | 오전 11:00                 | 제2교육관 4층   |
| 대 학 부  | (토) 오후 2:00              | 제2교육관 4층   |
| 청년 1부  | (토) 오후 5:30              | 제2교육관 4층   |

| 구 분   | 시 간      | 차 량             |
|-------|----------|-----------------|
| 화요일예배 | 오전 11:00 |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
| 금요일예배 | 오전 11:00 | 금요일찬양회 후당 앞출발   |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청년 2부    | 오후 12:15                                            | 제2교육관 2층   |
| 청년 1부    | 오후 12:30                                            | 제2교육관 507호 |
| 청년 2부    | 오후 12:30                                            | 제1교육관 407호 |
| 청년 3부    | 오후 12:30                                            | 제1교육관 307호 |
| 청년 4부    | 오후 12:30                                            | 제1교육관 301호 |
| 소 명 부    | 오후 12:15                                            | 갈릴리움       |
| 사 랑 부    | 오후 9:00(한복)<br>(주) 오전 8:30~8:50<br>(금) 저녁 7:20~7:30 | 제2교육관 1층   |
| 악 아 부    | 오후 12:10                                            | 다 나 홀      |
| 새가족양육부   | 오전 11:00                                            | 아 멘 홀      |
| 국제학생한국인교 | 오전 8:30~오후 4:30                                     | 제1교육관 7층   |
| 영유아초등지식선 | 주간교육                                                | 제1교육관 107호 |
| 송현어린이집   | 주간교육                                                | 송현복자관      |

5월 충현 기도의 창

- “하나님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1.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복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을 1:1이 되게 하소서.
  2. 위임목사단의 영육을 강권함(2:9)하게 하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불로(고전 2:2)로 사용하게 하소서.
  3. 모든 위원회 및 부부집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흔과 한 뜻(2:2)이 되어 우리 회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주소서.
  4.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고, 복음으로만 천국영광이 앙상된(딤후 4:6)되게 하소서.
  5. 1-1-1 전도(딤후 1:3)와 총리 교회주전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6.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7.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고, 예수살렘 찬양대(노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 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창성하게 하소서.
  8. 충현의 재단(유지·통·관·복)자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으로 한 내 남몰시선 전임이 은혜 중에 진행(딤후 2:15)되게 하소서.
  9. 비백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성 기 는 분 들

| ■ 위임목사 김성관                                                                                                                 |                                                                                                                            |                                                                                                                            |                                                                                                                            |
|----------------------------------------------------------------------------------------------------------------------------|----------------------------------------------------------------------------------------------------------------------------|----------------------------------------------------------------------------------------------------------------------------|----------------------------------------------------------------------------------------------------------------------------|
| 노광현<br>이희석<br>한송규<br>황의만<br>이태식<br>김영달<br>강창원<br>이단욱<br>강진현<br>임창식<br>전운배<br>박상대<br>이상석<br>김진태<br>이성진<br>조종민               | 이 훈<br>김종구<br>이정수<br>한송규<br>황의만<br>이태식<br>김영달<br>강창원<br>이단욱<br>강진현<br>임창식<br>전운배<br>박상대<br>이상석<br>김진태<br>이성진<br>조종민        | 이창호<br>전운배<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 | 차승환<br>김진태<br>한송규<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br>이창수 |
| ■ 어전집회                                                                                                                     |                                                                                                                            |                                                                                                                            |                                                                                                                            |
| 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 | 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 | 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 | 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br>김성관 |